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신묵 · 새생각회 회장

유익한 정보만 수집하라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한다.

‘자기가 자신에게 자신(自信)을 못가진다.’는 말처럼 현대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기술혁신이 되면서 사회구조가 자꾸만 복잡해지고 한 사람의 두뇌에는 들어갈 수 없을만큼 알아야할 것이 많아졌다.

박봉을 받더라도 짜고짜면 자기 일에 관해 한 달에 한 두 권의 전문지나, 몇 권의 참고서를 살 수 있다. 그러기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앞날에 닥쳐올 불안의 시대를 연구하고, 그것에 어떻게 적응할까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불안의 시대를 알았다면 이미 그 불안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고, 앞날에 자신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궁색해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닥쳐올 정보화사회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상에 만족하고 말거나 별로 밝지도 않은 앞날의 불안을 체념하여 적은 돈이나마, 더 잘 마시는 일에 그날 그날을 보내는 사람은, 정보혁명이 미치는 변동에 휘말려서, 언제까지나 사회의 밑바닥에서 신음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는 정보변혁이 가져오는 불안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니 차라리 생각하기조차 싫어한다.

비록 조그만 용돈이지만, 담배를 사서 피우고, 커피 또는 양주를 마시고, 그리고 읽는다면 스포츠신문 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체육계의 정보는 잘 알고 있다. 또 야구선수의 연봉은 얼마며, 다시 2년 지나면 어디로 옮겨질 것인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좌담할 때 가끔 이런 정보를 전해서 야구광이라는 말이나 들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왕 정보통이 되려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면의 정보를 손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스포츠의 정보에 정통하는 것보다 업계 지나 참고서를 사서, 나와 직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지나 연예지에 삼백 원이나 천 원을 아낌없이 던지기보다 전문지나 업계지 아니면 참고서에 돌리는 편이 훨씬 득이 될 것이다.

결국 조그만 용돈일지라도 쓰기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삼백 원이나 천 원의 적은 돈일지라도 쌓이고 모인다면, 자기의 장래를 좌우하는 커

다란 밑천이 된다는 것을 평소에 깊이 다져둘 일이다.

몸보다 머리로 벌어들

▶ 등산가인 M군. 어느 해 깊은 산속에서 방향을 잃고 고생한데서 궁리하여 등산과 여행의 필수품인, 물통의 꼭지에 지남침을 붙이는 고안을 했다. 상품화되자 크게 유행했다.

산에 홀린 그는 금광은 못찾았지만 물통의 꼭지위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 전표를 한 장, 한 장 잘라서 전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편해질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여 재봉침으로 한 줄의 구멍을 내기로 했다. 이 실용신안은 그 뒤 전표만이 아니라, 우표, 영수증, 복사지 따위의 모든 곳에 사용되어 현대인에게 말 할 수 없는 편리를 주고 있다.

만일 이것이 국제특허를 얻었다라면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을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 미국에서 롤러스케이트를 고안한 사람은 백만 달러의 특허료를 받았다.

▶ 쇠못이 못마땅하여 나무못을 만든 사람은 한 해에 오십만 달러의 특허료를 받았다.

▶ 구두끈 매기가 귀찮아서 지퍼를 고안해낸 게으름뱅이 사나이가 실용신안으로 해서 그 권리금을 육십만 달러에 팔았다.

▶ 부지런한 구둣방 주인이 구두창에 박는 징을 고안제조해서 연간 백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렸다.

▶ 캐나다의 양말골이 실용신안은 겨우 오만 달러에 팔렸다. 이것을 산 기업은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한다.

▶ 설탕 봉지에 바늘 구멍 하나를 뚫어서 백만 달러를 벌었다.

새생각은 숨넘어가려는 기업의 소생제이며, 맨손 알몸뚱이에서 입신출세의 여의봉이며, 백만장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돈을 벌겠다고 몸을 써서 덤빈다면 아무리 튼튼한 몸이라도 한계가 있지만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로 나아간다면 무한으로 갈 수 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이며 훈련하기에 따라 자꾸만 좋아지는 것이다. 훈련의 한 방법으로 대화를 하라.

당신은 백 권의 책을 한 시간에 못읽는다. 그러나 백 권의 책을 읽는 사람과 한 시간만 대화하면 그의 지식을 흡수할 수 있다. 타인은 당신에게 있어서 지식의 정리서랍이다. 상대는 사람만이 아니라, 서적, 잡지, 관청의 통계 등 모두가 남의 지식, 시간, 노력을 빌리는 것이 된다.

같은 것을 수집하라

인류가 지금까지의 괴로운 사냥과 채집의 생활에서 일변하여 쌀밥을 먹고자 일 년에 한 번

씨를 뿌리고 한 번 수확하여 한 해를 살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건이며, 이것은 팔만구천 년 전의 신석기시대의 일이다.

이것은 사냥과 채집보다 작은 면적에서 아주 많은 수확을 올린 생산을 높이는 현실과 앞을 내다보는 행동이 함께 들어 있다.

이 땅에 정착하자 마을이 생기고, 도시와 국가를 발전시켜 여가를 놓고, 이 여가로 토기를 만들어 석기시대를 벗어났다. 이 근본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이 농업이라면, 사물을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낙제다. 그러면 캐묻는다면 그 해답의 하나는 '같은 것을 묶는다'는 형식이 된다. 벼와 수박, 옥수수 등을 함께 섞어 심은 것이 아니다. 벼는 벼대로 모아서 재배했다. 거기서 생산공정이 분명해지고, 생산관리가 쉬워졌다는 형식이 생겼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묶는다는 재배방식은 그 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

채소나 벼, 밀은 재배법이 다르나 그 다른 재배법을 하나의 재배라고 하는 형식에 넣어 이해하는 소위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에 이 같은 것을 묶는다는 생각과, 인공

으로 재배 사육한다는 생각은 누에를 치거나, 양 치기는 양계가 되고, 닭, 송, 깃을 모아서 이불을 만드는 쪽으로 발전했다.

현대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고, 체조도 단체경기를 하고, 서적으로 전집과 특집호를 내고, 기업이 모여 자동차전시회를 열고, 그림과 글씨를 즐기는 서화전을 열고 바둑의 애호가인 기우회까지 응용 발전되어 왔다.

이 원리를 수집한 예를 들면, 나비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세계적인 나비학자 석주명 선생은 조선산 접류의 연구에 7과 8종 167,416 마리에 관한 형태와 생활 분포 등 상세한 자료를 묶은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또 신문수집에 일생을 바친 오한근 씨는 일간지, 주간지 등 구한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530여 종이나 되며, 이 중에 301 종이 창간호며, 독립신문, 대한 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우리 나라 신문의 효시였던 귀중지까지 모두 수집했다. 그의 수집벽은 광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도와 같았다. 발명품의 수집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며 창의적이라 하겠다. **발특9601**

